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35>

JCCT 2023-9-5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f Mature Nursing Students

이민희*, 김나은**, 최재은**, 양진향***

Min-Hee Lee*, Na-Eun Kim**, Jae-Eun Choi**, Jin-Hyang Ya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K시 대학에 재학 중인 만학도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Colaizzi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나이 등의 취업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취업조건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만학도로서 가진 장점을 찾으며 취업의 의지를 다져나갔으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만학도, 간호, 취업, 경험,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eply understand the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f mature nursing students. We interviewed 8 mature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in K and D, and analyzed the data through Colaizzi's method which was one of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t was composed of 4 themes and 8 sub-themes. The participants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by making efforts to increase the conformity of employment conditions while facing limitations to employment such as age. In addition, they were making efforts to find employment by finding their strengths as mature students, strengthening their will to work,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becoming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develop a programme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mature nursing students, and carry out specific and empirical follow-up studies.

Key words : Employment, Experience, Mature Students,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시 재입

학하는 만학도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1]. 2020년 입학
학생 기준 전체 만학도는 28,452명(5.4%)이었으며[2],
보건·의약계열의 전문대학은 2006년 91,160명(11.1%)에
서 2020년 129,008명(20.7%)으로, 4년제 대학은 2006년

*정회원, 인제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생 (제1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생 (참여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박사수료생 (참여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5일

Received: July 15, 2023 / Revised: August 11, 2023

Accepted: August 15, 2023

***Corresponding Author: jhyang@inje.ac.kr

Dept. of Nursing, Inje Univ, Korea

64,819명(3.4%)에서 2020년 133,762명(6.8%)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3].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강화로 인해 보건·의약 계열로의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1], 특히 안정된 직장생활 보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간호의 전문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간호학과 만학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만학도란 대학 진학의 적령기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의미하며[4], 대부분 대학 입학전형자격 기준으로는 25세, 30세 이상의 연령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5].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만학도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활이나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매우 부족하다[6].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는 취업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학업이나 대학생활, 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학도나 편입생 등의 소수 학생들의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7]. 또한 만학도들은 학우나 교수로부터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존재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시에도 많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이와 같이 간호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고는 있지만[9], 취업 후 이직률 역시 높은 현실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0]. 따라서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지원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양적연구[11,12]들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한 Hwang과 Cha[11]는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취업준비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 경험을 질적연구한 Kim과 Kim[13]의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에 있어 깊이 있는 탐색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경험을 질적연구한 Hong과 Lee[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생활 적응[15]이나 대학생활 경험[1,16,17]에 관한 질적연구가 많았다. 특히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경험을 연구한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적응 경험[18]에 관한 연구는 한 편 있었다. 하지만 이는 취업이 이루어진 후 직업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취업을 앞둔 만학도 간호대학생이 취업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 자체보다 만학도로서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취업지원 경험에 초점을 두고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발견하고 요구도를 파악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는 무엇인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laizzi [1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기술하므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특히,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개인의 속성보다는 참여자 전원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해하

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와 D시에 소재한 각 1개 대학의 4학년 만학도 남, 여 간호대학생 중 병원 취업지원 경험이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이다. 구체적으로 만학도 학생은 각 학교의 만학도 입학규정을 기준하여 선정하였다(*K대-만 25세 이상, Y대-만 26세 이상). 참여자는 총 8명으로 성별로는 여학생 6명, 남학생 2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명의 참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별 면담 횟수는 1회 2명, 2회 6명이었다. 1회 면담 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평균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시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으로서 취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이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취업기관을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지원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기관을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취업기관 지원 경험을 통해 변화된 것이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등이었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 [19]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추출하기 위하여 녹음된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필사한 후,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각 참여자별로 취업지원 경험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모습과 흐름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의 진술에서 반복되는 진술을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 구 문장, 단락 등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찾아 참여자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을 도출하였다.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 만학도 취업지원 경험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미들 중 주제 모음별로 범주를 조직하기 위하여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 모음을 조직하였고,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완전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범주, 주제모음, 주제로 진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발견된 본질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현상학적 연구에 풍부한 경험에 있는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 [21]이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간호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이 끝난 후에도 연구 대상 현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 교류를 하였다. 연구의 전이성 확보를 위하여 첫 번째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여 첫 번째 인터뷰 내용 및 자료 분석의 결과를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과정의 기록들을 감사 가능하게 남겨 놓아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였으며, 원 자료를 남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확증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에게 고찰을 받았다.

III. 연구결과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면담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분석하여,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한계상황 분석하기’, ‘취업조건에 부합성 높여가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축하기’이었다(Table 1). 이를 바탕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주제, 하위주제
Table 1. Categories, Theme Clusters on the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f Mature Nursing Students

Categories	Theme Clusters
Analyzing marginal situ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ing the reality that's hard to compromise - Considering the second best employment conditions
Increasing the conformity of employment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 Collect employmen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 your strengths and resolve to be strong - Getting a job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Building a foundation as a professional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hieve internal growth through job support - Drawing another area of expertise as a nurse

1. 한계상황 분석하기

참여자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이전에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취업에 제약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이들은 취업에 제한이 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취업 합격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병원을 선택을 해야 할지 탐색하였다.

1) 타협하기 힘든 현실상황을 알아감

간호학과 입학 때부터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참여자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나 나이 어린 친구들과의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었다. 현재 만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으로 반복되는 시험, 실습의 과정을

거치며 힘든 고비를 거의 다 넘겼다 생각했는데, 취업 지원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나이가 이렇게 큰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취업을 하려고 하니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걸 느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이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좀 좌절했던 것 같아요. 1차 서류에서는 다 통과하는데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들 첫 번째 말이 다 나이가 많은데 대단하다 하면서 최종 탈락이더라고요.(참여자 7)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기도 했고, 취업준비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욕심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상황으로 인해 취업에 몰두할 여건이 안되다 보니 계속해서 취업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극복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을 답답해하며 취업에 좌절을 겪으면서 몸소 실감하고 있었다.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기에 식구들도 챙기며 하다 보니 온전히 몰두하지는 못했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애들, 남편, 친정, 시댁 등 집안 행사를 내팽겨 칠순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애들, 남편, 친정, 시댁 등 집안 사정을 중심으로 하면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했는지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참여자1)

2) 차선의 취업조건을 고려해봄

참여자들은 여러번 취업실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취업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 것이 취업지원 시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취업실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체감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업 상황과 간호사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가족이 있는 집 근처 병원, 친구나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여 주변 지지체계를 통

해 간호사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실습할 때 보니 간호사로 일하는게 힘들어 보였고, 선배들도 일하는게 힘들다고 하셔서..저는 제가 오래 잘 버틸 수 있게 우선은 친구나 선배가 있는 곳으로 선택했어요. 동기들 보니 집 가까운 곳을 선택하거나 친한 선배가 있거나 그런 조건들도 보더라구요. 저는 oo병원 에 지원하면서 친한 선배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아울러 참여자들은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집에서 거리가 꽤 먼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높은 병원을 선택하기도 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느라 경제적인 부분은 살피기 어려웠던 터라, 다른 취업조건들 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취업지원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단지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직시 뿐 아니라 차후 미래를 이어나가는 삶의 경험이었다.

내일 또 면접이 있는데 ooo병원이라고. 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연봉을 5000만원 정도 준다고 해서 어차피 좋은 병원도 못 가는데 돈을 중요하게 봤어요. 어떤 곳은 면접 때 저를 좋게 보셨는지 꼭 같이 일하자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연봉도 종합병원보다 높더라구요. 4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니다보니 현실적으로 돈도 좀 필요하고..그래서 연봉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중이에요.(참여자8)

2.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여가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하여 취업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 젊은 동기들과 비교하며 취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원하는 취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업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얻었다. 졸업간담회, 취업설명회, 선배 등에게는 정서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이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 되도록 원하는 곳보다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

였고, 다른 학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참여자들은 만학도로 졸업 후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입학부터 미리 성적이나 토익 점수 등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나갔다. 이를 위하여 스터디나 소모임 등을 통하여 준비하거나 봉사를 통하여 간호사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취업은 어렵지만 특히 만학도 라는 것 때문에 미리 짐작하여 여러 곳을 지원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을 하거나 불합격을 대비하여 성적보다 낮은 곳에 지원하여 합격하도록 애썼다고 한다. 만학도들은 취업을 위해 입학부터 성적을 관리하고 토익 시험을 준비하거나 봉사 등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이라는 문턱에 대한 걱정이 앞서 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였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과 같이 취업을 하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토익도 준비하면서 4년 내내 제 자신을 옥죄듯이 쉴 틈 없이 취업 조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는 나이가 많다보니 입학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oo보건소에서 상담 전화 하는 일이었는데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분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제가 그런 의사소통을 좀 잘 끌어내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간호사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참여자3)

만학도들은 취업지원 준비 과정에서 원하는 병원보다는 조건이 맞는 병원을 선택하였다. 만학도라는 문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아 불합격을 줄이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취업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뽑아줄 수 있는 병원으로만 또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만 지원하여 합격을 얻기 위한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저는 취업 지원 할 병원을 선택할 때 대학병원은 어차피 안될 것 같더라고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떻게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 성적으로 좀 아깝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준중합병원
들만 지원했어요.(참여자 8)

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함

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대학을 입학하였다. 교내 온라인(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서로 나누어 취업준비 시간을 헛되지 하지 않거나 면접 후기를 통하여 실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알게 되는 내용이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힘든 취업이라는 길이지만 주변인인 졸업한 선배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동기에게는 취업과 연결되는 서류(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방법에 대한 지도해줄 선배도 소개 받았다.

제가 지원하려는 병원에 저희 학교 만학도 선배 한 분 계시고 그분한테 많이 물어봐서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학교 1년 먼저 간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이가 많아도 받아주는 병원 정보를 듣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 8)

취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얻었다. 간호사 취업 온라인 카페, 취업준비 오픈 채팅방, 병원 홈페이지 등으로 통하여 정보적 지지를 얻는 것을 통해 취업이라는 기쁨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나이 많은 간호학생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병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조건 중 특히 나이를 많이 본다든지 그런 병원을 미리 알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서로 면접 후기도 공유해서 면접 때 유의사항이나 옷차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3.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첫 시작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업지원을 통해 병원 간호사로서의 출발을 위하여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고자 노력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취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특히 많은 참여자들은 취업지원을 통해 만

학도라는 한계상황에 부딪혀 좌절감을 경험했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만학도의 강점 또한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취업이 확정된 참여자들은 취업 합격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남아있는 국가고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업 후 만학도 신규간호사로서 임상에서의 적응 부담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1) 나만의 강점을 찾고 의지를 다짐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병원 취업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굳은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만학도의 한계로 인해 수차례 취업지원을 했지만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시 취업에 도전하고 있었다.

저는 학교 오기 전에 간호사는 아니지만 병원 생활을 해봤어서.. 나는 간호대학을 가서 꼭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결심하고 왔고.. 사실 이번 취업준비하면서 좀 나이 때문에 상처 받은건 많지만, 일단 이제 조금만 견디면 간호사가 되니까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안 그럴려고 하는데 공부도 취업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요 슬퍼요(계속 눈물을 흘림).(참여자 1)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만학도라는 한계 상황을 겪으면서 또 반대로 만학도의 강점도 찾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도 궁금한 점은 서슴없이 교수에게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특히 대부분의 현역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임상실습시에도 참여자들은 연륜 있게 유연한 자세로 임상실습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학도의 장점을 찾음으로써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젊은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라든지 연륜이 좀 그래도 많은 편이다보니까.. 사실 수업 때나 임상실습 나가서도 우리가 이해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근데 그나마 실습 나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애들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대처 같은건 강하더라고요.(참여자 7)

2) 취업은 끝이 아닌 시작

취업지원에 성공한 참여자들은 합격의 기쁨과 취업 확정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잠시나마 느꼈지만,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취업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취업 성공이나 실패 보다는 현재 눈앞의 국가고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부 취업에 실패한 참여자들은 국가고시에 합격한 그 뒤에 취업을 재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취업지원에 실패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취업준비로 인해서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은 취업보다는 국가고시를 먼저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취업이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또 국시가 걱정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한숨) 그래도 취업은 됐으니 일단 마음 편해요. 근데 또 다른 걱정되는 건 국시 떨어지면 취업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 어찌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한 고개 넘고 나니 또 걱정입니다.(참여자 2)

한편 취업 후 신규간호사로 자신이 임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취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것이 아니라, 취업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신규간호사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취업 후 간호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걱정을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임상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본인이 조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신규간호사로서의 두려움과 함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취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는.. 그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취업을 했으니까 하는 안정감과 동시에 신규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은 나이 많은 신규를 탐탁치 않아 할까봐.. 태우거나 눈치 줄까봐 그런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요.(참여자 4)

4.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축하기

참여자들은 원하는 병원에 취업지원했지만 불합격이라는 아쉬운 결과에 좌절감도 많이 느꼈지만 한편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취업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원하는 곳에 취업성공을 한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의 그들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특히 간호학과에 입학하기 전 만학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력은 전문직 간호사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 취업지원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뤄감

참여자들은 만학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취업에 도전했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가 이 실패를 밑거름 삼아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도약일뿐 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좌절감에 빠져있기 보다는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나가는 연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류 탈락할 때까지는 제 병원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냥 관촬했었는데 근데 최종 면접도 하고 와서 떨어지니까 그게 조금 아무래도 그게 좀 충격이 좀 많이 컸었고.. 그렇게 세 번 네 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내 병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포기하기 너무 아깝고 뭐라도 안해보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다른 면접이라도 준비했더니 그래도 붙은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떨어지면 그냥 내 병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곳에 미리 멘탈 잡고 준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참여자 2)

참여자들은 취업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대학생활 4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만학도로서 4년 동안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힘든 취업준비, 면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과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하

였다.

전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병원 면접 보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붙은 거 보면서도 붙은 성취감과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 경험치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내가 진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사회인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참여자 1)

2) 간호사로서 또 다른 전문분야를 그려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많지만, 참여자들은 임상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모두 취업기관이 병원이었고, 임상경력을 어느 정도 쌓는 것이 간호사로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였다. 간호사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임상간호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며, 이는 이직 시에도 임상경력을 취업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늦게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할 때 더 힘들지는 않을까 두렵기는 하지만,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헤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임상경력을 쌓으려고요. 그래도 이직을 해도 조건이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통 기본으로 보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힘은 더 들겠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차근차근 연차를 쌓아가고 싶어요. 주변에 보면 신규간호사 생활이 힘들어서 초반에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던데... 걱정도 되지만 나중에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까지 가려면 그런 힘든 단계도 거쳐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어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취업지원과정에서 이미 임상간호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간호사로 미래에 펼쳐나갈 진로를 계획하며, 전문분야의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미리 경험한 사회적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취업병원 선택 시부터 미래 자신의 전문 영역을 염두하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임상경력을 기반으로 이전 사회생활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간호사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가 000, 0000에서도 일을 하면서 교육, 서비스직에 경력이 좀 있다 보니, 모성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이나 관련한 교육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여성전문병원으로 정하기도 했구요. 임상생활을 좀 하다가 간호사로서 제가 이전 사회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7)

IV. 논의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취업준비를 경험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에게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나이 등에 대한 여러 한계상황이 있었지만, 성적이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합격이라는 쓴 고비를 맞보기도 하였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만학도로서의 강점을 찾고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계상황 분석하기’는 ‘타협하기 힘든 현실상황을 알아감’, ‘차선의 취업조건을 고려해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전문직으로서의 발돋움의 결과를 확인한 Lim과 Cho[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는 기대와 다른 직장의 현실, 남자 간호사로서 한계를 느낌, 간호사는 보험과 같은 차선의 선택이라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취업준비 중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만학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조건에 부합성 높여가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함’으로 구성되었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안정적인 내 자리 찾기’의 유형분석으로 만족유형, 갈망유형,

생존유형, 혼란유형 중에서 급여가 높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급여가 높고, 안정적이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갈망유형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ee와 Ahn[8]의 연구에서는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을 자기실현형, 전문성 향상형, 대학생활 만족형으로 분류였다.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자기실현형 유형과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형은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한 심리적지지 체계마련과 정확한 취업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발 내딛기’는 ‘나만의 강점을 찾고 의지를 다짐’, ‘취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구성되었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여 동료 간호사들이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간호사의 장점 드러내기,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 내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wang과 Lee[24]의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개발하기 주제와도 유사하다. 즉,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기이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이 취업지원 전 학교에서나 취업 후 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축하기’는 ‘취업지원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뤄감’, ‘간호사로서 또 다른 전문분야를 그려감’으로 구성되었다. Cho, Kim과 Sok[3]의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연구에서 ‘그래도 희망은 꽃핍’과 유사하며,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실력을 쌓으며 기다리다가 현재의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나타난다면 이동하겠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만학도로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밑바탕으로 자신만의 간호사를 그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각적 방향으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끊임없는 교육의 기회는 내적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야의 발판이 되므로 간호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재 개발 및 전문직 간호사 양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을 위한 각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유치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만학도 대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만학도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은 학생 개인의 취업문제로서 끝나서는 안 되며 대학과 학생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자들은 추후 임상에 나갔을 때 신규간호사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각 병원에서는 확실적인 신규간호사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Colaizzi [1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의미와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들은 ‘한계상황 분석하기’,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여가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축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나이 등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취업조건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만학도로서 가진 장점을 찾으며 취업을 위해 굳은 의지를 다져나갔으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만학도 간호

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M. Cho, E.J. Kim, S.H. Sok, "Older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Experienc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9, No.2, pp. 671-683, February 2019. DOI : 10.5392/JKCA.2019.19.02.671
- [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Internet], 2020, Available from : <https://kess.kedi.re.kr/index>
- [3] M.H. Kim, E.H. Cho,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epartment Mature-age students Major Cours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4, pp. 19-26, July 2022.
- [4] J.H. Lee, Y.S. Ah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3, No. 3, pp. 89-116, September 2007.
- [5] J.J. Son, H.J. Koo, "A Study on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nd Non-traditional Learners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3, No. 2, pp. 141-163, June 2007.
- [6] M.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 doctoral thesis, pp. 12,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2021.
- [7] J.H. Lee, Y.S. Ah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3, No. 3, pp. 89-116, September 2007.
- [8] S.J. Son, H.J. Kim, "Study on Experience in Matur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4, pp. 527-546, December 2017. DOI : 10.22251/jlcci.2017.17.24.501
- [9] E.A. Kim, K.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 August 2012. DOI : 10.5977/jkasne.2012.18.2.312
- [10] J.S. Choi, J.S.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Obstacle of Adult Undergraduat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5, pp. 219-228, September 2022.
- [11] S.W. Hwang, H.S. Cha,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5, pp. 131-140, May 2020. DOI : 10.5762/KAIS.2020.21.05.131
- [12] M.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96-105, November 2019. DOI : 10.5762/KAIS.2019.20.11.96
- [13] H.J. Kim, J.H. Kim, "Career Cho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2, pp. 127-136, May 2022. DOI : 10.5977/jkasne.2022.28.2.127
- [14] J.E. Hong, H.N. Lee, "Experiences of Hospital Pre-Employment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9, No. 2, pp. 83-95, June 2020. DOI : 10.12934/jkpmhn.2020.29.2.83
- [15] M.K. Byeon, S.J. Park, E.Y. Choi, "The Experi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Late-starting Nursing Students : With the Application of Content Analysis Techniq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4, No. 4, pp. 65-74, December 2020. DOI : 10.34089/jknr.2020.4.4.65
- [16] K.S. Kim, "A Narrative Inquiry into Later Learners' Motives for Learning at University and Their Changed Life Experiences,"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Vol. 8, No. 1, pp. 257-282, April 2020. DOI :10.25051/jner.2020.8.1.010
- [17] M.S. Kim, "College Life Experience of Middle-Aged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a doctoral thesis,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usan, 2016.
- [18] E.M.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iddle-aged married women's adaptation to new nurse employment," a doctoral thesis,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Pusan, 2019.
- [19]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and King, M.(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71, New York, 1978.
- [20] H. Choi, H.J. Kim, "Overcoming Stres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Field Missionaries Rescuing North Korean Defe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8, No. 3, pp. 73-83, January 2020. DOI :
10.17703/IJACT.2020.8.3.73

- [21]Lincoln. Y.S, Guba. E.G, “Establishing trustworthiness,” In: Lincoln Y.S, Guba E.G.(editors), Naturalistic inquiry, pp. 289-327, Beverly Hills, CA: SAGE, 1985.
- [22]D.H. Lim, Y.L. Cho, “Research Trends in Korea on Mature Nursing Students - A Scoping Revie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3, No. 2, pp. 281-292, February 2022. DOI : 10.5762/KAIS.2022.23.2.281
- [23]H.S. Kim, J.S. Lee,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7, No. 1, pp. 25-38, February 2017. DOI :10.4040/jkan.2017.47.1.25
- [24]H.N. Hwang, Y.S. Lee, “Newly graduated Nurse’s Resilience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Contents Society, Vol. 21, No. 10, pp.656-667, September 2021. DOI : 10.5392/JKCA.2021.21.10.656